

#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와 개선방향

발표자 : 최 현 자 교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 목 차 -

- I. 서론
- II.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
  1. 가계소득
  2. 소비지출
  3. 향후 가계경제 전망
- III.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
  1. 우리나라 도시가구와 농가 및 국가간 식료품소비행태 비교
  2.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
  3. 경제위기와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
- IV. 맺음말 - 식료품소비행태의 개선방향

## I. 서론

지난 수십년 동안 진행된 사회·경제적인 발전은 가계소득의 상승, 주부의 취업기회 확대, 가계구성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식품산업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이로인해 우리의 식생활 또한 커다란 양적·질적 변화를 하게되었다. 식생활이란 인간이 영위하는 생활현상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생리적 욕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손경희, 문수재, 이민준, 최은정, 황혜선, & 이명희, 1988) 각 개인 및 가계의 식료품에 대한 소비로 표출된다. 이는 합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재화의 조합을 선택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비는 획득과 사용 및 처분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이를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척도가 바로 소비지출이다 (Magrabi, Chung, Cha, & Yang, 1991). 그러므로 가계의 식생활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식료품에 할당하는 예산인 식료품비지출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식료품에 할당되는 예산은 Engel 이후 가계의 생활수준 및 국민의 경제적복지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왔다. Engel은 가계복지와 관련된 식료품비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료품비에 대한 상대적 지출 비중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개인 또는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신체적 물질적 욕구를 위한 지출이 커지고 음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불충분할수록 음식물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가계는 실질구매력의 하락을 경험하

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지출을 비롯한 가계운영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노영화, 1998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IMF체제 이전과 비교하여 생활비증에서 가장 부담이 큰비용이 식료품비(51.4%)로 나타났으며, 외식비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4.3%로서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 소비자가 식료품비 지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3%의 소비자들이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잡비(57.7%)를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고 다음으로 외식비(45.8%)와 식료품비(38.5%)를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따라 소비지출을 비롯한 가계운영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전후<sup>2)</sup>의 가계경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가계의 가장 필수적인 소비지출항목이라 할 수 있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를 분석·평가하므로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가계의 식료품소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II. 경제 위기로 인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

본 장에서는 최근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가계경제구조의 변화를 통계청(1997, 1998a)의 보도자료인 「1997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과 「1997년 4/4분기 연간 및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을 기초로 하여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의 양적·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1. 가계소득

지난해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은 228만7300원으로 1996년 대비 소득증가율은 6.3%로 73년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996년에 비해 1.7% 증가하였으며 이는 1981년 1.0% 감소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소득증가는 특히 근로소득중 가구주 근로소득증가율의 둔화와 재산소득중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1997년 4/4분기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분기와 비교할 때 명목소득조차도 8.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소득의 감소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4분기 소득감소분의 대부분은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

1. 다음으로 자가용유지비(44.8%), 교육비(31.5%), 주거관리비(30.2%), 대중교통요금(25.3), 대출원리금(24.6%), 경조사비(19.1%) 및 외식비(14.3%) 순으로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위기전후의 비교를 위해 1996년과 1997년의 가계경제구조 및 1997년 3/4분기와 1997년 4/4분기의 가계경제구조를 각각 비교·분석하였으며 4/4분기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전년동기(1996년 4/4분기)와도 비교·분석하였다.

로 가계소득중 근로소득은 전기에 비해 7.8% 즉 161,700원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측정치의 경우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전소득도 무려 3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가계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 분기별 가계소득추이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5년 4/4분기		96년 4/4분기		97년 4/4분기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명 목 소 득	2,003.0	11.1	2,205.9	10.1	2,218.5	0.6
실 질 소 득	1,981.2	6.4	2,077.2	4.8	1,987.9	-4.3

자료: 통계청보도자료 (1998a)

## 2. 소비지출

199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167만6900원이었으며 이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서 1996년에 비해 4.2%가 증가한 145만3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3년 통계작성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의 경우는 오히려 0.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의 6.0% 감소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특히 1997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43만3200원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명목소비 자체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0.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인 1997년 3/4분기의 148만5천원과 비교하면 명목소비만도 3.5%나 감소한 액수이다.

소비지출의 구조적 변화를 보면 먼저 96년에 비해 연료비 인상으로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그 외 전품목에 걸쳐 소비지출 증가율의 둔화 또는 감소를 보였다. 선택재적인 성격을 띤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및 피복신발비의 경우 전해에 비해 소비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식료품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개인교통비의 경우 지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지난 4/4분기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필수적인 소비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출금액이 감소하였다.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교육비의 지출도 2.8% 감소하였으며 교양오락비와 개인교통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인 광열수도에 대한 지출은 연료비 인상에 따라 2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다른 필수적 소비품목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기인 3/4분기와 비교해 보면 필수비목인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비롯해 거의 모든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의 지출을 크게 줄여 전기에 비해 교육비는 무려 3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분기별 소비지출추이

(단위 : 천원,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5년 4/4분기		96년 4/4분기		97년 4/4분기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명목소비지출	1,303.1	8.6	1,445.4	10.9	1,433.2	△0.8
실질소비지출	1,288.9	4.0	1,361.0	5.6	1,284.2	△5.6

자료: 통계청보도자료 (1998a)

### 3. 향후 가계경제전망

지난 2월 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 5대도시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IMF이후 소비자의 소비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IMF체제하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물가상승, 소득감소, 그리고 실직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구매력의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영화, 1998에서 재인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부와 기업이 추진중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1998년의 실업률이 7.0%(15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성공할 경우에도 앞으로 3년간 실업률은 6% 이상의 고실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매일경제 5월9일자). 통계청(1998b)에 따르면 1998년 3월중의 실업률은 6.5%로써 실업자수는 이미 137만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약 8가구당 1명의 실업자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3월중의 소비자물가도 전년동기에 비해 9.0%나 증가하였으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이미 12.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지출의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수입확대를 위한 세율인상과 공공요금인상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 외환위기로 비롯된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가계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비량을 통해 측정된 소비자의 객관적복지수준은 이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는 소비자의 주관적복지감과도 맥을 같이하는데,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노영화, 199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소비자의 70.5%가 IMF이후 가계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계경제에 대한 향후전망에서도 10.9%가 낙관적이라고 한 반면 40.2%는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소비자의 주관적·객관적 복지수준은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III.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

본 장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지출패턴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의 도·농간의 식료품비지출 변화추이를 앵겔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추이와 더불어 각국의 앵겔계수를 비교하므로

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식료품소비행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근로자 가구의 식료품비지출구성의 양적·구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1997년 4/4분기의 식료품비지출행태를 전년동기(96년 4/4분기) 및 전기(97년 3/4분기)와 비교 분석하므로써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 나라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우리 나라 도시가구와 농가 및 국가간 식료품소비행태의 비교

가계의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정되는 엔겔계수는 가계의 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우리의 생활수준을 엔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표3>참조) 도시가계의 경우 1965년에는 총가계소비지출예산의 60% 이상을 식생활을 위해 할당하였으나 1996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가계소득의 28.5%만을 식료품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30여년간 도시가계의 생활수준이 많은 향상을 보여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농촌가계에서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농가의 경우는 자가생산물에 대한 소비가 식료품비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측정상의 문제로 인해 농가의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과소평가 되어 도시가계에 비해 엔겔계수가 낮게 나타난다.

<표 3> 도·농간 엔겔계수의 변동

단위 : %

연 도	농 가	도시 전가구	도시 전가구	
			근로자 가구	봉급자 가구
1965	53.1	63.4	64.0	59.5
1970	45.9	46.6	46.5	44.4
1975	47.3	48.8	48.9	45.4
1980	36.8	43.2	43.0	39.9
1985	28.4	37.5	37.7	34.7
1990	23.5	32.0	32.5	30.0
1996	20.0	28.5	28.2	26.7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1997

도시가계를 봉급자와 근로자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두 가계 모두 지난 30여년 동안 엔겔계수가 감소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가계에 비해 봉급자가계

3) <표1 >엔겔계수에 따른 생활수준

계수	생활수준	계수	생활수준
21%	상류생활	25%	여유있는 생활
30%	다소 여유있는 생활	35%	위안할 수 있는 생활
40%	다소 위안할 수 있는 생활	45%	다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50%	겨우 생존가능한 생활	55%	한계 이하의 생활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p.55에서 재인용

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지출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한국의 엔겔계수는 비교국가 18개국중 15위로서 엔겔계수로서 우리의 생활수준을 가름한다면 이들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이 비슷한 제외국가들에 비해 엔겔계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외식비에 대한 과다지출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종구, 박성용, 1997).

<표 4> 국가별 엔겔계수의 비교 (1993년)

(단위 : %)

국가	엔겔계수	국가	엔겔계수	국가	엔겔계수
필리핀	57.3	덴마크	20.7	뉴질랜드	18.3
인도	53.0	호주	20.6	싱가포르	17.1
멕시코	33.1	이탈리아	20.1	캐나다	15.7
한국	29.2	스웨덴	19.9	홍콩	14.8
타이	29.2	일본	19.9	네덜란드	14.6
영국	20.7	프랑스	18.3	미국	11.4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 2.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

앞 절에서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에 할당하는 예산의 몫이 지난 30여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식료품의 구성비를 통해 우리 나라 식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곡류에 대한 예산의 감소와 외식비비중의 증가이다. 1965년 전체 식료품예산의 61.5%를 차지하던 곡류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여 1989년까지는 곡류, 육류 혹은 채소 및 해초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995년에는 전체 식비의 11.1%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외식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1965년 1.3%에 불과하던 것이 특히 1980년대 후반 들어 급증하여 90년대에 진입하면서 가계의 식료품비중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되었다. 1995년의 경우 외식비의 비중은 곡류에 대한 지출의 3배를 초과하는 몫으로 도시근로자가계는 총식료품예산의 1/3을 외식에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박상학(1992)이 1984년과 1990년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과 일본 및 독일과 비교해 본 결과를 보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전연령계층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구주연령이 55-64세인 연령계층에서는 외식문화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외식비 비중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5년 일본이 국민소득 \$11,127일 때 외식이 총식료품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14.1%였으나 (정용선, 1993에서 재인용) 우리의 경우 국민소득이 이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1997년 이미 식료품비의 38.1%를 외식비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과 관련된 과소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식료품비를 주식, 부식, 기호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여<sup>4)</sup> 그 구성비를 통해 가계의 식생

<표5>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지출 구성의 변화 (단위 : %)

연도	식료품비 (천원)	곡류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초	유지및 조미료	과실	빵 및 과자류	음료	주류	외식	식료품관련 서비스
		주식	부식					기호품				외식	
1965	(5.3)	61.5	12.0	1.3	-	13.1	6.9	-	1.1	-	0.8	1.3	1.9
			33.3					1.9					
1970	(11.5)	44.1	16.6	3.1	-	14.8	7.8	3.1	3.4	-	1.5	2.6	3.6
			42.3					8.0					
1975	(27.8)	47.0	13.6	3.2	-	11.2	8.7	3.7	4.6	-	2.1	2.0	2.0
			36.7					10.4					
1980	(74.7)	34.5	16.8	4.9	-	12.6	8.7	5.2	5.9	-	3.6	4.1	3.7
			43.0					14.7					
1985	(113.9)	28.4	12.0	5.2	8.5	12.5	8.7	6.1	5.7	2.9	1.6	8.1	0.2
			46.9					16.3					
1990	(211.1)	19.4	11.4	5.0	9.1	10.9	5.2	6.8	5.7	3.1	1.4	21.6	0.2
			41.6					17.0					
1995	(353.8)	11.1	11.0	4.1	8.8	9.5	4.1	7.5	5.7	3.2	1.4	33.5	0.1
			37.5					17.6					
1996	(394.0)	11.5	10.3	3.7	8.5	8.9	3.9	7.2	5.9	3.1	1.4	35.5	0.1
			35.3					17.6					
1997	(417.5)	12.3	12.2	9.7	-	8.7	-	6.9	-	-	-	38.1	-
			34.1					15.6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및 통계청(1998a) 보도자료에서 재구성

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식료품에 대한 선호가 주식에서 부식 그리고 외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1970년대 후반까지는 주식비가 주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부식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컸고 1996년부터 외식비지출이 식료품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과실, 빵, 과자류, 음료 및 주류 등과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선호도 커져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이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풍요를 누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정한 시점에서 꼭 지출할 필요는 없으나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음료, 주류, 가공식품, 외식과 같은 선택성식료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경제위기와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96년과 1997년의 식료품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1997년 3/4분기와 1997년 4/4분기의 식료품비지출의 차이를 비교하므로써 경제위기에 따른 식료품소비행태의 변화를 살펴본다.

4. 주식은 곡류, 부식은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해초, 유지 및 조미료, 기호식품은 과실, 빵, 과자류, 음료 및 주류, 외식은 외식비를 나타냄.

았다(<표5>과 <표6> 참조).

1997년 도시 근로자가구는 총소비지출의 28.7%인 41만7500원을 식료품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1996년에 비해 5.1% 증가한 것으로 그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지출구성의 변화를 보면 1996년에 비해 곡류와 육류에 대한 소비는 감소한 반면 채소·해조류, 과일류 및 외식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를 주식, 부식, 기호식품, 외식으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보면, 부식과 기호식품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외식의 비중은 증가하는 예상외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6>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구성의 변화

(단위 : 천원, %)

구 분	96년 4/4분기		97년 3/4분기		97년 4/4분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전기대비증감율
식 료 품	418.6	29.0 (100.0)	441.4	29.7 (100.0)	427.8	29.8 (100.0)	- 3.1
곡 류	64.9	(15.5)	48.3	(10.9)	64.7	(15.1)	34.0
육 류	39.5	(9.4)	46.3	(10.5)	37.9	(8.9)	-18.1
채 소 해 조	35.2	(8.4)	36.1	(8.2)	39.1	(9.1)	8.3
과 실 류	37.3	(8.9)	37.3	(8.5)	26.2	(6.1)	-29.7
외 식	148.6	(35.5)	165.3	(37.4)	156.2	(36.5)	- 0.6

자료: 통계청보도자료(1997, 1998a)

1997년 3/4분기에 비해 4/4분기에는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였으나(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지출이 감소하므로써 소비지출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서 29.8로 증가하였다. 특히 곡류에 대한 지출액과 지출비중은 연중 가장 컸으며 채소와 해조에 대한 지출액과 지출비중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육류와 과일 그리고 외식에 대한 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4분기의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의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기 위해 전년동기와 비교해 본 결과 96년 4/4분기에 비해 2.2%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증가율(8.9%)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앵겔계수는 29.0에서 29.8로 증가하였다. 즉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전년동기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류 및 과일류에 대한 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외식비의 지출 증가율은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의 감소와 물가의 상승은 가계로 하여금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했다. 이는 주로 육류와 과일류 및 외식에 대한 지출에서 나타났으며 곡류에 대한 지출은 34.0%나 증가하였다. 전기에 비해 지난 4/4분기에는 과일류와 육류에 대한 지출은 각각 29.7%와 18.1% 감소하였으나 식료품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은 0.6%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과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았으며 외식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난 정용선(1993)의 수요함수계측결과와는 다른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즉 소득 감소시 소득감소율보다 과실에 대한 소비



지출의 감소율은 더 작으며 외식비지출은 더 큰 감소율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에 대한 소비지출의 감소율이 가장 크며 오히려 외식비의 감소율이 가장 낮아 외식소비의 대한 강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 IV. 맺음말 - 식료품소비행태의 개선방향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량실업은 가계의 주소득원인 가구주근로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더불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지출인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소득의 감소나 식료품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소비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이상의 소비자가 IMF이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지출비목으로 식료품을 지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생활비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비목으로 외식비 뿐만 아니라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까지 줄이려고 하는 것은 경제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식료품 소비가 기본적인 욕구충족 이상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에서 보다는 선호와 관련된 식료품소비가 식료품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부분에서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식료품소비에서의 거품이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건전소비실천방안의 첫 번째 항목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외식자제를 제시하였다.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적인 재화에 대한 소비의 경우 특히 구매한 식료품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예산을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정의 쓰레기 발생량은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가정의 1.3배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조원이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이는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를 12,958천가구라고 할 때 1가구당 연간 61만7400원, 즉 한달 반 동안의 식료품비 예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식료품소비방향으로 먼저 식품구매시 식단을 작성하고 미리 필요한 품목과량을 확인하여 적절한 양을 구매하여야겠다. 먹을 만큼만 구매해서 조리한다면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의 과소비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외식비의 경우 상당수의 소비자가 외식비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은 외식비를 필수적인 소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양세정(1991)은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1985년 자료를 통해서는 외식을 선택재로 분류하였으나 199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준선택재로 재분류하였으며 소비자보호원(1998)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평균 4.7회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2.6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현재 소비자들은 외식을 필수적인 재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소비생활이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과거에는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소비비목이었던 외식이 현재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식비가 현재의 우

리의 생활수준에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가계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소비비목이 바로 외식에 대한 지출이다. 외식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외식횟수를 줄여야겠다. 통계청(1998a)자료를 통해 가구주연령에 따른 외식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24세 이하인 연령층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외식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앞으로의 식생활 양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외식을 하지 않으며 고급호화음식점의 이용을 자제해야겠다. 개인의 소비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소비행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감소한 외식 습관을 키워나가야겠다. 마지막으로 외식후 남은 음식은 싸오는 습관을 키우기로 하자.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가계의 식료품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될 수 있겠다.

소비지출의 10% 절감은 10% 이상의 소득창출효과를 지닌다. 경제위기시대를 맞아 모든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명한 소비생활을 통해 특히 외식과 같은 비필수적인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을 지양하고 식생활에서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종구·박성용(1997).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7-01.
- 노영화(1998). 소비행태의 변화. 광고정보 (5월호), 23-25.
- 매일경제 1998년 5월 9일자
- 박상학(1992). 미·일·독과 비교해본 한국가구의 소비지출행태 (가구주연령별 분석을 중심으로). 국민경제리뷰 8월, 6-18.
- 손경희, 문수재, 이민준, 최은정, 황혜선, 이명희(1988). 도시 주부의 식품 소비 변화와 미래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53-66.
- 양세정(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서울:교문사.
- 정용선(1993). 소득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 -도시 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1975-1990). 소비자학연구 4(1), 59-74.
- 통계청(1998a). 보도자료 - 1997년 연간 및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 수지동향
- 통계청(1998b). 보도자료 - 98년 3월 및 1/4분기중 산업활동 동향.
- 통계청(1997). 보도자료 - 1997년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 시대의 건전 소비 생활① -알뜰살림 101가지 지혜.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1997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